“학문 · 수행, 구법하는 마음으로 정진”



테마人 권탄준 원장(70)
대행선연구원 · 금강대 명예교수

글=신성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화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대방광’은 진리, ‘화엄’은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화엄경〉은 선재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구한다. 그는 구도의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해 입법계의 뜻을 이뤘다. 선재동자는 가장 모범적인 구도자이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하다. 그의 구법 원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대행선 연구, 불교학 지평 확장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금강대 명예교수)은 학문과 수행에서 높은 구법 원력을 보여준 화엄학자다. 대행선연구원 제2대 원장으로 지난 8월 임명 · 취임했다.

9월 21일 대행선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권탄준 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원력과 정성으로 연구 불사에 임할 것을 밝혔다.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창립된 대행선연구원은 지금까지 5차례의 계절발표회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불교학계에서는 생소한 분야였던 대행선에 대한 객관적 담론의 장이 마련돼 관련 연구 ·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대행선에 대한 학술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상을 학술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집안의 모든 일은 정성과 원력으로 하는 법이라고 했으니, 정성과 원력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장 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권탄준 원장은 약 17년 전 청도 운문사에서 인사한 것이 대행 선사와 인연의 전부였다. 본격적인 인연은 〈현대불교신문〉에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 연재를 하며 대행 선사 지상 법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접하며 시작됐다. 처음에는 ‘비구니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하셨나’라는 생각으로 읽었지만 이내 스님을 존경하게 됐다.

“수십 년간 불교서적을 보아왔으니 일반인보다 조금 더 이해가 빨랐죠. 난해하지 않은 평이한 선사의 법문들을 읽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지식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

대행 선사와의 짧은 만남은 이제 대행선연구원장이라는 큰 인연으로 이어졌다. 앞서 권탄준 원장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강렬한 만남이 있었다. 바로 선지식과의 만남이었다. 그 선지식은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이다.

본래 권탄준 원장은 경북지역 축구 명문 춘양중학교에서 축구부 주장으로 센터포워드를 맡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당시 권탄준 원장은 축구에 인생을 걸었고, 고등학교 역시 축구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권탄준 원장을 원하는 고교 축구부는 없었고, 고교 입시에 실패하게 됐다. 선수 생활을 하느라 학업을 게을리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해 2월 중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49재를 지내기 위해 문경 김룡사에 가게 됐다. 그곳에는 성철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49재에 나이 어린 학생이 오는 것이 의아했는지 성철 스님은 시자 스님에게 누구인지를 물었고, 시자는 “고교 입시에 낙방해 집에서 놀고 있다”고 답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철 스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성철 스님은 권탄준 원장에게 이 같이 불호령을 내렸다.

“못난 놈, 불알을 떼어 내삐리라. 명색이 사내대장부가 되어가지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으면서 자기 앞길도 못 닦는 주제에, 죽은 너의 할머니 극락길을 닦아준다고 왔나? 너는 49재를 지낼 자격이 없으니, 49재에 참석하지 말고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삼천 배를 하라.”

그렇게 시작한 삼천 배가 잘 될 리 없었다. 절을 할 때마다 스님에 대한 원망이 욕설과 함께 나왔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결국 소년 권탄준은 성철 스님에게 찾아가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지금 너 집에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갈 테냐”고 물었다. 겁이 덜컥 난 권탄준 원장은 다시 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회향날 철야기도까지 마무리한 권탄준 원장을 성철 스님은 칭찬하며 짧은 법문을 설했다.

대행선 연구로 인생 2막

8월 대행선연구원 2대 원장 취임
〈한마음연구〉 등재지 추진 과제
“‘대행선’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원력과 정성으로 연구 불사 매진

불교는 내 운명

유망 축구 선수였지만 진학 실패
할머니 49재서 성철 스님과 만남
“재 참석 말고 절 올려라” 질책해
이후 불교에 심취… 행자 생활도

“사람들이 흔히 ‘죽도록 해보았지만 안 되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도록 해보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을 떼어놓고 죽도록 하면, 공부든 사업이든 도 닦는 일이든 어떠한 일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 때에는 ‘그렇게 힘든 절도 일주일이나 해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며 분심을 내어라.”

집에 돌아온 권탄준 원장은 공부에 매진했다. 독을 품고 공부하니 잠도 오지 않았다. 오로지 ‘공부하다 죽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했다. 집중해서 공부하니 책의 내용이 머리에 저절로 들어왔다. 그러기를 몇 달, 권탄준 원장은 서울 명문 경복고등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공부의 기초도 없던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철 스님께서 가혹하게 절을 시켜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 철야정진이라는 특별 선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목숨을 걸고 죽도록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토요가하시 가는 길

B5 문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B6 학술
대행선硏, ‘대행 선사 계행 · 교화행’ 계절발표회